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교육 3섹터 온라인 운영

경기다문화교육, 시공간 한계를 넘어 더 넓고 깊게 배움 확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과 해외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교육 3섹터 온라인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도내 7개 초·중학교와 6개 지역 한국어랭귀지스쿨(KLS) 기관에서 실시하며, 영어·한국어·중국어 등 모국어 기반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 3섹터 운영은 교육 1, 2섹터 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연계해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문화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핵심 한국어 표현 동요와 짧은 동영상(쇼츠)을 활용해 자기주

도 학습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입국 전 다문화학생과 해외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도 지원해 경기 다문화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길잡이(튜터) 기능 등 첨단 교육 기술도 도입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역·온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 결과는 오는 12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교육 3섹터 프리미엄 러닝 포럼’에서 공개해 다문화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 독도 탐방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은행유스센터는 오는 9월 20일, ‘독도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성남시 청소년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가 진행한다.

제1기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는 지난 7월 19일, 광복의 의미와 독도의 역

사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우리 영토인 독도의 가치를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8월 30일에는 독도 관련 홍보 쿼츠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독도 역사 알리기 캠페인’에서는 독도 역사 퀴즈, 독도 키링 만들기 체험, 청소년이 제작한 독도 홍보 쿼츠 나눔 활동이 펼쳐진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은행유스센터 김범중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배우고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평택사랑카드페이백 2차 이벤트’ 대상자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진행한 ‘평택사랑카드페이백 2차 이벤트’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9일부터 보상 환급(페이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8월 한 달간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여 15회 이상 결제하고, 누적 결제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었다.

응모대상자는 총 2만 6천880명이며, 이 중 8천42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6월에도 ‘평택사랑카드페이백 1차 이벤트’를 진행하여 2천236명에게 1만 원 보상 환급을 한 바 있다.

송민수 기자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반딧불이 체험’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에서는 18일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반딧불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총 48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기 유튜브 ‘다혹’과 협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시에 제공한 반딧불이를 생태공원내 생태전시실에서 직접 관찰하는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반딧불이의 생태와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초막골생태공원은 지난 2021년 공원 내 다랭이논과 땃골이습지 일원에

서 반딧불이 서식이 확인된 이후 2022년부터 환경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반딧불이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원 사업 중인 반딧불이는 출현 시기와 개체수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와 보존을 위한 반딧불이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분들에게 반딧불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반딧불이와 관련된 다수의 콘텐츠 제작 및 전시 행사를 개최한 유튜브 ‘다혹’이 본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협업을 제안해와 금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은주 군포시장은 “이번 반딧불이 특별 프로그램이 시민분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분들께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반딧불이와 같이 사라져가는 생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는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김동연 지사, 안양 건설현장 외벽 붕괴 현장 긴급 출동

강풍에 비계 붕괴…김동연 지사, 자정까지 복구·재발 방지 지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경 돌풍에 의해 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명 정도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비계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경기 기화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진 후 안양전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를 찾아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이상일 시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추진 건의

이시장,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이몰 핵심 기반사업” 강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이상일 시장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건의문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분당선 연장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김 장관에 대한 서한에서 “용인 남부권과 동탄·오산 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시민 불편을 고려할 때 분당선 연장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와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



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북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철도국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성남·수원·화성 시장과 함께 공

송민수 기자

동 건의문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4개 시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의 420만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을 이룰 기반 인프라”라며 “사전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동요제 성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 ‘2025년 어린이집 영유아 동요제’가 지난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보육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어린이집 영유아 동요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 2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의 자리가 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본선에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영아팀 7팀과 유아팀 8팀 등 총 15팀이 무대에 올라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우승팀으로는 시립기내숲어린이집과 으뜸어린이집 등 유아팀 2팀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10월 30일 ‘2025년 보육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에서 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부여된다.

박미량 화성특례시 복지국장은 “이날 대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며 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오늘의 무대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6회째 수상 영예

안양시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정책대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6회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2019년 종합대상을 시작으로, 2021~2022년 정책대상, 2023년~2024년 종합대상에 이어 올해 다시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청년특별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상으로,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시는 ▲청년단체·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의 시정 참여를 지원하는 ‘안양청년인재 등록’ 플랫폼 운영 ▲청년임대주택을 비롯한 ‘청년주거 안심 정책’ 확대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 개관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이날 오전 9시45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양시 청년들과 함께 만든 성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양에서 꿈을 키우고 안심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청년 활동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용성 있는 정책 발굴과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안성시 옛 군수관사

문화창작플랫폼 개관전

안성시는 옛 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한 문화창작 플랫폼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상설로 개관 기념전 「기억의 안성장, 창작의 플랫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역사적 공간이 지난 시간의 커위에 안성의 과거와 현재를 포개어 비추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선 시대 안성장은 전주·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손꼽히며 전국의 상인과 장인이 모여들던 교류의 중심지였다. 농산물과 한약재, 가족과 수공업품이 활발히 오가던 그곳에서 장인들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닌, 생활과 예술을 잇는 문화의 창조자로 자리했다.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안성을 ‘장인의 고장’으로 기억하게 한다.

전시는 두 개의 장(場)으로 구성된다. 1부 「기억의 장」에서는 전국의 상인과 장인이 모여들던 옛 안성장의 변顔を 되새기며, 교류와 거래가 빚어낸 풍요로운 시간을 돌아본다. 2부 「현재의 장」에서는 유기, 복조리, 주름 등 안성을 대표하는 문화장인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창작물들은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을 보여준다.

안성장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물품, 기술과 이야기가 모여드는 거대한 플랫폼이었다. 이번 개관전은 그 정신을 오늘날의 문화창작플랫폼으로 잇고자 한다.

송민수 기자